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5:18)

1. 들어가는 글	5. 신학적 주제들
2. 고린도후서의 전후 맥락	5.1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2.1 사도바울과 고린도교회	5.2 구원
2.2 네 번째 편지	5.3 교회
2.3 전달자 디도	5.4 사도의 직분(Apostleship)
3. 이유와 목적	5.5 신자의 삶과 고난
3.1 거짓 선생들의 정체	5.6 신자의 죽음
3.2 화해의 직분 사도직	5.7 사탄
4. 구성	6. 글을 마치며

1. 들어가는 글

어느 신학자는 고린도후서를 ‘주석가의 낙원임과 동시에 절망을 가져다주는 서신’이라고 했다.¹⁾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2:1).” “새 언약의 일꾼(2:6)” “질그릇에 담긴 보배(4:7)”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4:16)”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5:17)”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날이로다(6:2)”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6:16)”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7:1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11:30)”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12:9)”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13:13) 등등

그러나 한편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린도후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글들 중의 하나로 본다. 신약성경 중에서 고린도후서만큼 주의 깊은 주석을 필요로 하거나 노련한 작업과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²⁾ 고린도후서는 다른 어떤 바울 서신보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많이 표현되고 있다. 분노와 염려, 슬픔과 기쁨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막말을 퍼붓기도 한다. 자신의 말을 바꾸기도 한다. 자신의 고생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자랑한다(4:7-10; 6:4-10; 11:23-29). 자신의 사도적 사역의 합법성을 위해 거칠게 싸우는 변증론자(apologist)의 면모를 강하게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격양

1) Ralph P. Martin, *Word Biblical Commentary: 2 Corinthians*. 김철 옮김. 『WBC성경주석 고린도후서』. (서울: 솔로몬, 2007), 9.

2) Ibid., 9.

되어 있고 몹시 흥분되어 있다. 종잡을 수가 없다(11:23). 그런데 어느 학자가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결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노력한 열정.”이라고 해석했다.³⁾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열정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고 한다. 고린도후서는 목회자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실제 삶의 신학(theology of the flesh)’⁴⁾을 잘 보여준다. 우리도 바울 사도의 목회적 열정과 신학적 열정을 배울 수 있다.

2. 고린도후서의 전후 맥락

고린도후서에 드러난 사도바울의 감정적이라도 할 수 있는 열정과 인간적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의 전후 맥락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린도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와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교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가 쉽지 않다.⁵⁾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 등을 종합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2.1 사도바울과 고린도교회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 의도를 알려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주 중요하다. 우선 고린도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특별했다. 고린도후서라는 편지가 있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있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밤에 환상 중에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일 년 반 동안 머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다고(행 18:10-11). 그 결과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교회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한다(고전 4:14-15).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낳은 옥동자이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계속된 교회다.

그런데 그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발생한다. 고린도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척박한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막 싹을 틔웠다. 이 싹이 자라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자라고 열매를 맺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꺾여버릴 위기가 찾아 온 것이다. 이 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다. 대적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아’서 편지 쓰기를 즐겨 한 것이 아니다(10:10). 바울 사도는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여러 차례 편지를 쓰곤 했다.⁶⁾ 고린도후서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고린도교회에 급박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이다.

2.2 네 번째 편지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네 번의 편지를 썼다고 여겨진다.⁷⁾ 네 편지 중에는 지금은 남아

3) Scott J. Hafemann,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2 Corinthians*. 채천석 옮김. 『NIV 적용주석 고린도후서』. (서울: 솔로몬, 2013), 23.

4) Ibid., 26.

5) Murray J. Harris,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2005), 1.

6)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고린도 방문 계획 수정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고후 1:15-17; 2:1-3

7) Scott J. Hafemann, 『NIV 적용주석 고린도후서』, 24.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음행의 문제로 첫 번째 간략한 편지를 보냈다(고전 5:9). 그 후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예배의 질서 및 외부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와 관련한 몇몇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냈다(고전 7:1). 고린도전서는 54(혹은 55)년 오순절 이전에 에베소에서 썼다(고전 16:5-8). 고린도후서는 일 년 후에 쓰여 졌다(8:10; 9:2).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썼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는 55(혹은 56)년 가을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고린도후서를 쓴 장소는 마게도냐일 것이다(2:13; 7:5).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고린도교회에 급박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을 했다. 그때 스스로 ‘사도’라 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로 들어왔다. 그들은 바울의 진실성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비난했다(고전 11:4). 고린도교회는 바울의 메시지보다도 거짓 선생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결과 고린도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흔들렸다. 사도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밝혔던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고린도교회로 급히 갔다(13:1-2). 이 때가 두 번째 방문이다. 그러나 그 방문의 결과는 실망이었다. 모욕과 굴욕을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7:7; 12:11). 그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양들에게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다(2:4). 이것을 우리는 ‘고통스럽고 엄한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⁸⁾라고 부른다. 물론 이에 대해 반론이 있고 고린도후서는 많은 역사적 문화적 문제들을 갖고 있다.⁹⁾

바울 사도는 세 번째 편지인 ‘엄한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낸 후에 고린도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그 반응을 알고자 했다. 드로아에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고린도교회의 문제로 마음이 편지 못해서 선교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3:12,13).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교회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다(7:5-13).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를 써 보냈다. 후에 세 번째 방문을 하여 3개월 간 머물렀다(행 20:3). 그 때 로마서를 썼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세 번 고린도를 방문했고 네 편의 편지를 썼다.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자 결론적인 편지라고 보아야 한다.¹⁰⁾ 고린도에 보낸 편지들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열정의 산물이다.

2.3 고린도후서의 전달자 디도

고린도교회의 첫 모회를 디모테가 했다(고전 16:10). 디모테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개척한 개척자다(2:19; 행 18:5). 그는 고린도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전 16:11).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테 대신 디도를 보내게 된다.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와 이 편지를 고린도교회에 전달한 사람은 디도다(8:24). 디도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열매였다. 그는 헬라인이었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갈 2:1). 2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며 바울 사

8) 일부에서는 그 내용이 고후 10-13장이라고 말하고, 일부에서는 그 내용은 없어졌다고 말한다. Howard Marshall · Stephen Travis · Ian Paul, *Exploring the New Testament Vol. 2: The Letters and Revelation*, 박대영 옮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서울: 성서유니온, 2008), 167.

9)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후서는 통일된 하나의 서신이 아니라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바울이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에 쓴 몇 가지 기록들을 편집한 합성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 가정을 뒷받침할 사본적 증거는 없다. Luke T. Johnson, *The Writings of The New Testament An Interpretation*, 채천석 옮김, 『최신 신약개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402. 우리는 고린도후서가 통일된 하나의 편지로 기록되었다고 본다.

10) 정훈택, 신약개론, 대한예수교총회, 2009, 199.

도의 편지를 고린도교회에 전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전령의 역할을 했다(2:4-13, 7:5-7). 바울 사도는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독려했다(8:6). 디도는 바울 사도의 대리자요, 믿을만한 동역자가 되었다(8:23). 후에 바울 사도는 전도여행 중에 디도를 그레테 섬에 떨어뜨려두었다(딤후 1:5).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디도는 그레테의 초대감독이었다.¹¹⁾ 디도는 고린도교회와 바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고, 어려움에 빠진 고린도교회를 잘 수습했다.

3.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와 목적

바울이 쓴 ‘엄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방향에 순종하여 바울의 적대자들을 징계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 근심하게 한 자를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한다(2:7). 고린도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고린도후서를 통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반대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고린도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대적자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응징을 시사한다(13:2).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히 변증한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¹²⁾ 바울 사도는 양떼들과 벌어진 틈을 잇는 다리를 다시 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¹³⁾ 양들이 자신의 ‘엄한 편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자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과 고린도교회를 갈라놓는 바울의 대적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주된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 거짓 선생들의 정체

그들은 양떼들을 설득하여 율법 준수파를 지지하게 하려고 했다(3:7). 그들은 이방 세계의 은사주의적 순회 설교자들을 모방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예수님과 같은 이적 행사자들로 생각하던 헬라적 유대 그리스도인들(Hellenistic Jews)이었다.¹⁴⁾ 그들은 바울을 실패자로 몰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 말도 못하고 이적도 행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11:4).¹⁵⁾ 이들 거짓 선생들의 유창한 말에 말려들어 고린도교인들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 바울과 양들 사이에는 불화가 생겼다. 바울과 양떼들은 그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바울은 대적자들은 물론이고 양들의 생각에도 도전을 해야만 했다.¹⁶⁾

3.2 화해의 직분 사도직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11:13). 그의 양들이 이들의 꾀에 넘어가 그의 사도직을 불신한 것에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권징을 하지 않고 양들을 말로써 설득하려고 한다. 이는 바울이 대적들이 비난한

11) Ibid., 237.

12) Ibid., 201.

13) Luke T. Johnson, 『최신 신약개론』, 403.

14) William R. Baker, *The College Press NIV commentary: 2 Corinthians* (Joplin: College Press Pub., 1999), 30.

15) Ibid., 28.

16) Howard Marshall · Stephen Travis · Ian Paul,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78-179.

것처럼 연약한 겁쟁이여서가 아니다. 바울은 자신이 치욕을 당하더라도 양떼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강압보다도 설득을 더 좋아했다.¹⁷⁾ 그는 칼을 휘두르는 대신 눈물의 편지로 대신했다. 바울은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사도의 권한에 대해 반대한 양떼들에게 화해를 시도한다. 그는 양떼들과 오해를 풀고 서로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가 화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 직분의 본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의 사도직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10:1-18). 그는 순수한 동기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심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12:19).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도였다.

4. 이 편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서신의 구조를 사도직과 연결시켜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A. 1:1-7:16, 자신의 직분이 새 언약의 사역이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도권을 변호한다. 진정한 사도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고린도교회와 불편한 관계의 회복을 시도한다.
- B. 8:1-9:15,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인정의 증거로 구제헌금을 권면한다.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참여를 촉구한다.
- C. 10:1-13:13, 비판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자기 방어의 입장에서 사도권을 변호한다.¹⁸⁾

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좀 더 세분할 수 있다.

- I. 1:1-7:16, 바울의 행동과 사도의 사역에 대한 설명
 - A. 1:1-11, 소개
 - B. 1:12-2:13, 바울의 방어적인 행동
 - C. 2:14-7:16, 사도의 사역에 대한 묘사
 - D. 2:14-4:6, 사도의 사역에 대한 장엄함과 뛰어남
 - E. 4:7-5:10, 사도의 사역에서 겪은 고난과 영광
 - F. 5:11-6:10, 사도의 사역의 본질과 훈련
 - G. 6:11-7:16, 사도의 사역에서 열림과 위로
- II. 8:1-9:15, 헌금을 위한 사도의 설교
 - A. 8:1-15, 너그러움의 필요성
 - B. 8:16-9:5,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의 사명
 - C. 9:6-15, 너그러움의 결과
- III. 10:1-13:13,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방어
 - A. 10:1-18, 사도권의 훈련
 - B. 11:1-12:13, '어리석은 자(as a Fool)'로서의 자랑
 - C. 12:14-13:10, 세 번째 방문에 대한 계획
 - D. 13:11-13, 결론¹⁹⁾

17) John Phillips, *Exploring 2 Corinthians: An Expository Commentar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2), 16.

18) Luke T. Johnson, 『최신 신약개론』, 403.

19) Murray J.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vii-xi에서 요약 정리함.

5. 고린도후서의 신학적 주제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양들에게 복음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는 양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쓴 편지(occasional letter)로 분류한다.²⁰⁾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신학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단편적일 수 있지만 바울의 독특한 신학적 주제들을 잘 들어내고 있다.

5.1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과 특성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²¹⁾ 하나님은 은혜의 원천이시다(1:2; 8:1; 9:14). 하나님은 자비롭고 위로가 넘치는 분이시다(1:3-4; 7:6).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1:9).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신실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다(1:21).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3:3).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5:19).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9:7).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1:3; 11:31).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12:2-3).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13:11).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을 체험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유와 관용을 보여주셨다(10:1).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5:15).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5:21). 예수님은 교회인 신부의 오직 유일한 한 남편이시다(11:2).²²⁾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벗어버릴 수 있다(3:14; 4:3-4).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5:17).

성령님은 신자들이 장차 받을 기쁨과 부활에 대한 보증이시다(1:22; 5:5).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고린도의 양들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인데, 이 편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the living God)이신 성령님께서 쓴 것이다(3:3). 주님의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3:17).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완악함으로부터 자유이다. 그것은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끊임없이 보는 것이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이다(3:18).²³⁾ 사도는 양떼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망한다(13:13). 고린도후서는 삼위일체의 신학을 잘 말해 준다.

5.2 구원

바울은 구원을 설명할 때 언약에 그 기원을 둔다. 언약은 또 옛 언약으로부터 시작한다. ‘옛 언약’(3:14)에 대한 설명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렘 31:31)과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새 언약’(고전 11:25)으로부터 나왔다. 고후 3:7-18이하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 사건과 연결된다(출 34:29-35).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다 영광

20) 최홍식, “고린도후서의 구조와 신학적 주제들,” 『두란노 HOW주석, 고린도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7), 16. ‘상황적 서신’라고 했다.

21) Ibid., 16.

22) Ibid., 18.

23) Ibid., 19.

스럽다(3:7-8). 그러나 새 언약이 좀 더 영광스럽다(3:9-11).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지만 (3:3,7)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다(3:3).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다(4:6). 바로 그 날이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다 (6:2).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3:6).²⁴⁾ 따라서 바울이 강조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다.²⁵⁾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일(God’s provision)이다.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5:19).

복음은 ‘화해의 메시지(the message of reconciliation)’(5:19c)이다.²⁶⁾ 화해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사역(5:18-19a)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 받았고(5:19b),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5:20b-21). 그리고 그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들은 메시지를 위임받은 자들이며(5:19c),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간청하는 자들이다(5:20).²⁷⁾

5.3 교회

고린도에 세워진 것과 같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1:1)이다. 그러나 하늘의 공동체인 하나님이 교회는 아직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다.²⁸⁾ 교회의 회중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재이다. 하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약혼한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 ‘오실 때까지 (parousia, 파루시아, 재림)’ 그 순결을 지켜야 한다(11:2-3).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6:14-7:1).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세속적 인간의 삶과 가치관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교회는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며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²⁹⁾ 바울 사도는 사랑과 화해의 표현으로 시련과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야 함을 강조한다(8-9장).

5.4 사도의 직분(Apostleship)

바울은 부모와 같이 고린도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넓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2:4; 12:14; 6:11). 그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듯이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12:15). 그는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염려했다(11:28). 그는 양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다(1:24). 그는 양들을 순수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섬겼다(1:24; 4:5). 그는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약하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생명과 능력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했다.

24) Murray J. Harris,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117.

25) Ibid.

26) Ibid., 118.

27) Ibid.

28) 최홍식, 21.

29) Ibid., 22.

5.5 신자의 삶과 고난

만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슬픔’과 ‘고난’이 ‘경건한 길’이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 (as God intended)’이라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적 유익을 낳는다.³⁰⁾ 6:14-7:1에는 ‘거룩한 삶(holiness of life)’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나온다.³¹⁾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의 존재를 ‘역설(paradox)’로 표현할 수 있다.³²⁾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1:3-4; 7:5-6)를 체험하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4:8-9; 7:4; 12:7, 9-10)을 체험하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체험하고(4:10-12; 5:4; 6:9), 육신은 늙어가지만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짐을 느끼고(4:16), 슬픔 중에 즐거워하고(6:10), 그리고 가난 중에도 넉넉함(6:10; 8:2) 등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지에 신자의 일반적인 고난(1:3-11)과 바울 사도의 특수한 고난(6:4-10; 11:23-29)이 나온다. 사도는 아시아에서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당했다. 그는 그곳에서 고난이 너무나 커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1:8).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건져주셨다(1:10).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다(1:3-4). 둘째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우리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따르기 때문이다.³³⁾

5.6 신자의 죽음

바울은 당혹스럽게 죽음을 만나고(1:8-11), 쉼 없이 다가오는 고난(11:23-29)과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는 모습(4:16)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다. 부정적인 면에서 죽음은 이 세상의 장막 집이 무너지는 것이다(5:1). 즉 육체적인 유기체와 세상적인 조직을 동시에 잃는 것이다.³⁴⁾ 적극적인 면에서 죽음은 물질적인 몸(mortal embodiment)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5:8). 신자의 죽음은 ‘노숙자로 남아 있는 것(left homeless)’이 아니라 ‘거주지가 변한 것(a change of residence)’을 경험하는 일이다.³⁵⁾ 신자들의 순례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난다.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직접 하늘에 올라간 사건을 경험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12:2-4) 신자의 마지막은 ‘육체가 이탈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reembodiment)’임을 알았다.³⁶⁾ 일시적인 ‘육체 이탈의 상태’에서 지각을 느끼는 일은 가능하다. 즉 ‘3층 천(the third heaven)’과 ‘낙원(paradise)’은 긴밀하게 가까이에 있다. 그곳은 의로운 자들이 죽어서 살 곳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3층 천’에 위치하고 있다.³⁷⁾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소망 중에 받아들일 수 있다.

30) Ibid., 19.

31) Ibid.

32) Ibid.

33) Ibid., 23.

34) Ibid., 23.

35) Ibid., 24.

36) Ibid.

37) Ibid.

5.7 사탄

사탄은 성도를 속이고 넘어뜨린다(2:11). 사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한다(4:4). 사탄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든다(11:3).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6:15).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 현장의 삶과 신학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였다. 고린도 교회는 나무랄 데 없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도 구원의 과정 중에 있으면서 믿음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었다.³⁸⁾ 그들이 좀 더 품격 있고 건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려면 좋은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그들에게 목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한다. 그 구원 사역은 목자를 통해서, 즉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곧 사도의 직분이며, 화해의 직분이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수많은 공격에 맞서서 자신을 강력하게 변호한다. 바울은 회개하는 다수를 강건케 하고, 동시에 저항하는 소수를 얻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기초이다. 그리고 분명한 신학을 기초로 양들을 도울 수 있었다. 바울의 신학과 선교는 ‘이론’ 대 ‘실천’처럼 서로 단순히 관련되지 않는다. 그의 선교적 삶과 신학은 하나였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지향한 선교사이자 선교적으로 지향한 신학자이다. 그의 신학은 선교적이고, 그의 선교적 열정은 신학적이다.³⁹⁾

6. 글을 마치며

목회자가 사람들의 공격에 맞서서 다투고 자신을 변호하는데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참된 복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하는 고난을 기뻐해야 하지만, 복음의 대적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 동시에 목회자는 공격하는 자들과도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 바울 사도처럼 눈물과 변증과 질책의 방법을 써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메시지의 저자 유진 피터슨은 말한다.⁴⁰⁾ 지도자의 지도력은 권한의 행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지도력은 쉽게 힘을 행사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힘을 행사하는 순간, 지도력은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배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그들이 자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 하는 지도력을 익혔다. 그는 자신을 화해의 직분을 맡은 대사로 생각했다. 그는 지도자로서의 힘을 화해를 이루는데 사용했다. 자신이 고린도교회와 화해를 위한 시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권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

38) Ernest Best, *Second Corinthian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노승환 역, 『고린도후서: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39) Scott J. Hafemann, 채천석 옮김, 『NIV 적용주석 고린도후서』, 27.

40) 유진 피터슨, 메시지 신약. (서울: 복 있는 사람, 2009), 480.

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쉬운성경, 5:20)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우리가 가진 지도력이 양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기를 소망한다.

참고서

- 정훈택, 신약개론, 대한예수교총회, 2009,
- 최홍식. “고린도후서의 구조와 신학적 주제들.” 『두란노 HOW주석, 고린도후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7.
- Barnett, Paul. *The Message of 2 Corinthians: Power in Weakness*. 정옥배 옮김. 『고린도후서 강해: 약함 안에서 능력』. 서울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 Best, Ernest. *Second Corinthian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노승환 역. 『고린도후서: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9.
- Scott J. Hafemann,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2 Corinthians*. 채천석 옮김. 『NIV 적용주석 고린도후서』. 서울: 솔로몬, 2013
- Johnson, Luke T. *The Writings of The New Testament An Interpretation*. 채천석 옮김. 『최신신약개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Marshall, Howard · Travis, Stephen · Paul, Ian. *Exploring the New Testament Vol. 2: The Letters and Revelation*. 박대영 옮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서울: 성서유니온, 2008.
- Ralph P. Martin. *Word Biblical Commentary; 2 Corinthians*. 김철 옮김. 『WBC성경주석 고린도후서』. 서울: 솔로몬, 2007
- Wiersbe, Warren W. *Be Encouraged*. 박건 옮김. 『(고린도후서 강해) 격려하면서 살라』. 서울: 나침반사, 1988.
- Baker, William R. *The College Press NIV commentary: 2 Corinthians*. Joplin: College Press Pub., 1999.
- Harris, Murray J.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W.B. Eerdmans Pub. Co., 2005.
- Phillips, John. *Exploring 2 Corinthians: An Expository Commentar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02.
- Thrall, E.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Edinburgh: T&T. Clark, 2000.